

# ‘여> 예> 에’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김성규\*

## I. 서론

1. 국어사 연구에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하향적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되면서 모음체계에 변동을 가져온 문제에 집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5세기에 하향적 이중모음이었던 ‘에, 애’와 ‘외, 위’가 시차적으로 단모음으로 변한 현상은 국어의 모음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sup>1)</sup>

여기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논의에 한 가지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은 ‘ㅋ, ㆁ, ㆁ, ㆁ’ 등의 꺾기 상향이중모음이 전설모음인 단모음으로 변한 현상인데, 이들 현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모음 체계의 변화에 해당하지만, 상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지역에 따라, 어휘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음운 변화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상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 백두현(1992:162~164)에서는 ‘ㄱ> ㆁ’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2)</sup>

\* 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1)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논의의 토대는 이승녕(1949, 1954)에서 이루어졌다.  
2) 백두현(1992:162)의 정리에 의하면 1의 견해에는 김진우(Kim 1968), 이광호(1977), 박충구(1982), 최태영(1983) 등이 속하며, 2의 견해에는 이승녕(1954), 이병근(1973), 최명옥(1982) 등이 속하고, 3의 견해에는 김완진(1963)이, 4의 견해에는 오

- (1) '여)...' 에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견해
  1. 'ja>əi>'e'의 음운도치로 보는 견해
  2. 'ja>'e'의 축약으로 보는 견해
  3. 'ja>je>'e'의 음운 변화와 모음 체계상의 연쇄 변화로 보는 견해
  4. 'ja>ja>'je>'e'의 순행동화로 인한 하향적 j 첨가
  5. 'ja>ja>'je>'e'의 i 첨가로 보는 견해
  6. 'ja>ja>'je>'e'의 순행동화로 인한 하향적 j 첨가와 'ja>'e'의 축약 두 단계로 보는 견해

이들 가운데 세 번째 견해를 표명한 김완진(1963:23)에서는 자음 뒤의 '여>'에 대해 도치로 보던 이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에의 변화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병근(1973:139)에서 지적하듯이 'j'의 음운변화와 모음 체계상의 연쇄 변화에 의하여 설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j계 하상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정착되기 전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여>'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위의 4, 5, 6과 같은 견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이 논문에서는 j계 상하이중모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와 관련이 있는 하하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음라우트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는 하하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하이중모음과 하하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축약으로 보는 기존의 설명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하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논의 결과는 음라우트라고 불리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것이다. 음라우트와 여기서 주제로 삼고 있는 단모음화 현상들이 서로 설명의 접합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 없이 서술되던 현상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면, 국어 음운사를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

종갑(1983), 최임식(1984) 등이 속하고, 5의 견해에는 유창돈(1964:159), 최전승(1986) 등이 속한다. 그리고 백두현(1992:163)에서는 6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하기 전과 이후의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립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서 관련을 맺고 있는 두 현상이 단순히 규칙의 소멸과 생성이라는 관점으로만 기술되면, 둘 사이의 관련성이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II. ‘여>…>에’의 변화와 그 해석

1. 방언에 따라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예>에’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최명옥(1995)에 의하면 ‘별, 뺨’ 등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여>가’ 중부방언에서는 ‘여’로 실현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뵐, 뺨나’ ‘뵐, 뺨’로 실현되며, ‘이기+어’와 같은 활용의 경우에는 중부방언에서는 ‘이겨’로 실현되지만, 서북방언과 동북방언, 그리고 서남방언 일부와 동남 방언 일부에서는 ‘이게’로 실현되고,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는 ‘이기’로 실현되며, 경상북도 일부에서는 ‘이가’와 ‘이겨’로 실현되기도 한다.<sup>3)</sup>

2. 서론의 (1)에서 통시적 변화 과정의 설명이 다양함을 보았는데, 방언 현상에 대한 공시적 설명 역시 다양하다. 통시적 변화의 결과인 형태소 내부의 문제는 공시적인 방언 논의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서는 활용에 보이는 ‘여>예>에’에 대한 설명 몇 가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배주채(1994:96)에서는 공시적으로 ‘기어서→기에서→계:서→계:서’처럼 ‘어’전설화 및 활용화와 보상적 장모음화, 그리고 ‘j’ 탈락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박숙희(1998:47) 역시 ‘이기어→이기에→이게, 마시어→마시에→마세’의 과정으로 보아 어미초의 모음이 어간말 모음에 동화되고 어간말 모음이 동자질 삭제규칙에 의해 탈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이진호(2002:123)에서는 ‘이기에’ 단계에서 ‘이게’ 단계로의 변화를 설정하면, 이와 유사한 현상인 ‘주어서→조서’의 경우 ‘주어서→주오서→ㅈw오:서→조:서’의 과정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에 의한 ‘우’의 활용화를 인정할 수 있는

3) 각 지역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최명옥(1995:168)의 각주1) 참조.

지 여부가 문제되며, 동자질 삭제 규칙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오종갑(1999:8)에서는 공시적으로 'ya'가 바로 'e'로 축약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진호(2002:121~124)에서는 '여'축약을 공시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규칙으로 처리하며 '이어→에'라는 직접적인 모음축약 규칙으로 이 현상에 대한 공시적 기술을 꾀하였다. '이어'는 '이'가 탈락하면서 '이'가 가지고 있던 '전설성'의 자질 값을 후행하는 '어'에 물려주며 탈락하는 것으로, '이어'가 직접 '에'로 축약된다는 해석이다.

김봉국(2002:130~131)에서는 '달리+어→달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중 첫 번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즉 '여→에'의 축약이 일어나는데, 이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간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어간이 '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활음 'j'를 남기면서 '에'로 축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4)</sup>

(2) 달리+어→달러→달레→달레	달리+어→달리어→달리에→달레
달리+어→달리에→달레	달리+어→달려→달레

3. 활용이 공시적인 현상이지만, 그것 역시 통시적 발달의 결과이므로, 통시적인 설명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변화와 형태소 경계의 변화를 함께 다루게 된다. 그런데 형태소 내부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는 이병근(1973:141)에서 제시한 '여자'예자, 여우)예수~예기~예끼이, 여치)예치(이:치)' 등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해 '여'에의 직접적인 축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는 '여'에의 변화를 겪어서 '에'로 실현되지만 자음 뒤에서는 많은 경우 'j'계 상행이중모음의 실현이 어려워져, '여'예)에'로 변화를 한 단계 더 겪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에서 보았듯이 '여'...)에'의 변화를 도치로 설명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여'예)에'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김완진(1963:23)에 들어서

4) 이는 최명옥(1995:178)에서 후기근대국어 동북방언의 '타+어→테'의 과정에 대해 '키'가 바로 '기'로 축약되지 않고 어간이 'i'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j'를 남기면서 '기'로 축약된 것으로 해석한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다. 그 근거로 이용된 것은 'jə)e'의 중간단계로 'je(예)'가 있고, '혀(舌))\*  
 헤(hje)ㄹ세)세)ㄹ세'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해석되는 정상 방언의 예가 존재한  
 다는 점이다. 그런데 '혀'의 경우는 '혀)서)세)ㄹ세'의 과정으로도 방언형의 '예'  
 계통을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음절 초 자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로 '겨'를 들 수 있는데, 곽충구(1982)에서는 '왕겨'의 방언 분  
 포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 (3) 왕겨: 경기도 북부(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 왕겨: 충남 대부분 지역
- 왕겨: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서부 지역
- 왕겨: 충북과 인접 지역인 충남의 연기, 대덕, 금산
- 왕겨<sup>5)</sup>: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서부 지역
- 왕기: 경남
- 왕저: '왕'과 '저'가 결합하였다.(전북 북부, 영동, 경북)
- 왕저: 충남의 남부 지역인 보령과 청양
- 왕지: 경남
- 왕당기: 경남

'여)예)에'에 대해 전설모음화를 인정하지 않고 축약의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논의들이 있다. 그렇다면 위 (3)의 그 변화 과정은 다음의 (4)와 같을 것이다.

(4)

	축약	고모음화 (e>i)	ㄱ구개음화	결과
kjə				겨(kjə)
kjə>ke	kjə>ke			게(ke)
kjə>ke>ki	kjə>ke	ke>ki		기(ki)
kjə>čə			kjə>čə	저(čə)
kjə>kje>ke>či	kjə>ke	ke>ki	ki>či	지(či)
kjə>?)>kje				계(kje)
kjə>?)>če				제(če)

5) 김형규(1974)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 광주, 화성, 용인, 강원도 화천,  
 횡성, 정선, 평창, 영월, 원주, 원성 등 넓은 지역에 '왕겨'가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방언형의 ‘계’를 설명하지 못하며,<sup>6)</sup> ‘제’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아니면, 이들 방언에서만 ‘j’에 의한 ‘ǰ’의 전설화나 ‘계’에 ‘j’가 삽입되는 과정 또는 ‘-기’ 단모음 ‘에’ 앞에서 구개음화되는 과정을 설정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이들의 변화는 곽충구(1982:1~9)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각 방언형으로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에는 ‘jǰ)je)e’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5)

	‘j’에 의한 ‘ǰ’의 전설화	j 탈락	고모음화 (e)i	-기개음화	결과
kjǰ					겨(kjǰ)
kjǰ)kje	kjǰ)kje				계(kje)
kjǰ)kje)ke	kjǰ)kje	kje)ke			게(ke)
kjǰ)kje)ke)ki	kjǰ)kje	kje)ke	ke)ki		기(ki)
kjǰ)čǰ				kjǰ)čǰ	저(čǰ)
kjǰ)kje)če	kjǰ)kje			kje)če	제(če)
kjǰ)kje)ke)ki)či	kjǰ)kje	kje)ke	ke)ki	ki)či	지(či)

3. 우리는 앞에서 방언 자료를 볼 때 ‘여(…)’에 ‘jǰ)je)e’의 세 단계 변화를 겪었으리라고 보았다. 그런데 문헌 자료에도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기원적으로 ‘키’였던 어형들이 ‘기’로 표기된 예들이 형태소 내부이건, 활용의 경우이건 다수 발견되는 것이다.

(6) 15, 16세기<sup>7)</sup>: 예자(六尺 능7:12), 열예자히라(능7.12), 넬제(계초16)

(7) 17세기: 엘헛도다(두중10.38), 예자(육척)(두중 12.16뒤), 날희예(두중 17.10 앞), 예희여(두중6.51뒤), 메누리(역상57), 멧귀다(두중7:3), 네자(노언장60 앞), 메조(역어 상52뒤), 베슬(방언유석1.14뒤), 베륙(이세보 시조), 계울(잡

6) ‘겨’계를 보이는 예로는 여기서 든 ‘왕겨’의 ‘계’ 이외에 명주 지역의 활용형 ‘기어’계’도 있다.

7) 출전은 백두현(1992)를 따랐다.

- 상7); 폐디다(두중15:17),
- (8) 18세기: 입계 야(也)(유합32앞), 네인(미타2앞 3뒤), 동네(미타16뒤), 네몸(염동15앞), 베슬(미타 13), 밧세(십구 2.82뒤), 상세(십구1.34앞); 너계(십구 1.74뒤), 섬계(십구2.35뒤)
- (9) 19세기 20세기<sup>8)</sup>: 갯계(여사17앞), 계을(冬)(영삼 2.23뒤), 겹털(영삼 18.27 앞), 멧 스람(권주23뒤), 멧번(권주12뒤), 멧 부처님(권주30앞), 멧싱을(권주43앞), 베(稻)(권주22뒤), 베리 기(紀)(역대2뒤), 벳양(陽)(역대1뒤), 베기(역대10뒤): 빗계 부니(권주 14뒤),

이들 (6)~(9)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볼 때 '여'가 '여'에)에의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음을 알려 준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완진(1963:23)에서는 같이 '여'의 '어'가 가지고 있는 음가와 새로이 형성된 단모음 /e/와의 관련하여 해석하였고, 최명옥(1995:178, 183)에서는 어간을 분명히 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j가 첨가되면서 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위의 (6)과 (7)의 시기에 'ja)je'의 변화를 직접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에는 아직 'e'가 단모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종갑(1983:14),<sup>9)</sup> 백두현(1992)에서는 이 변화를 다음처럼 두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10) ja→je(단모음 e 성립 이전)      ja)je(단모음 e 성립 이후)

이 두 변화 과정은 별도의 규칙이지만 활음의 영향을 받아 후행 모음에 동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하겠다. 즉 변화의 원인은 동일하고 그 효과도 유사하지만 모음체계의 변화로 인해 규칙

8)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의 자료로는 광충구(1994:141~142)와 최명옥(1995:178)에서 제시한 동북방언의 '테(교51), 고테(회157), 메게리(회115), 니페서(교58), 대레(회 81), 땡계(교16), 자빠데(교8), 두두레(교20)', 최임식(1984:96~97)에서 제시한 서북 방언의 '각체(고전1:2), 헤(舌데2:33)', 오종갑(1983, 1994:28)에서 제시한 전라 방언의 '계워(춘52), 편운(화1055), 가렌(이692)이나 '빗계(리, 상, 34), 벳혜(리, 상, 35), 살혜보니(열, 상, 8)' 등을 추가로 들 수 있다.

9) 최전승(1987:183)에서는 '머주)메조'의 변화를 '\*머쥬'를 재구하여 역행동화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오종갑(1983:14)에서 지적하였듯이 '머느리)메느리' 등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자체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Ⅲ. i모음 역행동화와 전설모음계의 생성

1. 국어음운사에서 i 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주로 움라우트라는 이름 아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현상은 전설모음의 존재라는 전제 조건의 설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후설모음인 ‘ㄱ, ㅋ, ㆁ, ㆅ’ 등이 후행하는 모음 ‘i(또는 j)’의 영향으로 ‘개, ㅐ, ㅓ, ㅗ’로 변화하였다면 ‘개, ㅐ, ㅓ, ㅗ’가 전설모음이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이는 결국 국어 모음체계에서 전설모음계의 등장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문헌 자료를 훑어보면 다음과 같이 움라우트와 유사한 변화로 보이는 예들이 전설모음계의 성립 이전에도 발견된다.<sup>10)</sup>

(11)

- 15세기: 괴사시이다(월석2.65b), 몰래이다(월석21.53a), 괴지(농업8.67b), 배허도(금강경삼가해2.7b), 제비(두시언해6.13b)
- 16세기: 예순(번역노걸대 하11b), 어엿비(번역노걸대 상 52b), 대혁(속삼강행실도 효8)
- 17세기: 내힐 産(인해태산집요25a), 나딩기다(가례언해6.32a)
- 18세기: 그대지(인어대방1.22b), 익씨(경신록언해79b), 익씨며(경신록언해80b), 제비(경신록언해66a), 색기(정조언간), 뵈기(불설대보부모은중경 용수사 31a)

이승녕(1954-)에서 지적하였듯이 15세기의 ‘개, ㅐ, ㅓ, ㅗ’ 등은 분명 단모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 가운데 15세기의 것을 현대 국어의 움라우트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15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서인가 단모음화가 있었고, 단모음화 이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를 별개의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10) 김주원(1998:131~132)에 든 예들 가운데 몇 개씩만 다시 인용하기로 한다.



- 1) (11)의 예들은 모두 동일한 현상인가?
- 2) (11)의 예들을 통해 전설모음 'e, ε, ü, ö'의 성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가?

15세기에 'ㄱ, ㅈ, ㅊ, ㅌ'가 이중모음이었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대해 후설모음의 전설모음화인 음라우트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후행하는 모음 'i(또는 j)'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 뒤에 'j'를 삽입하여 하향적 이중모음을 만든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경우는 규칙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서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현상이 되어 있다. 현대국어의 'ㄱ, ㅈ' 등이 단모음이라고 해서 15세기의 동일 문자를 단모음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현대적인 편견이라면, 현대국어에서 'aki'가 'eki'로 변한 예가 있다고 하여 문헌 자료의 유사 자료를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관점 역시 현대적인 편견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sup>11)</sup>

최전승(1990:104)에서 지적하듯이, 안병희(1985:897)에서 논의된 1522년의 <<법집별행록절요언해>>에 보이는 '죄히(淨)'는 뒤에 오는 'j'의 영향으로 'j'가 삽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주원(1998:130~134), 백두현(1992:211~225)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설모음계의 존재 이전에 보이는 예들은 이-모음역행동화에 의한 'j' 삽입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이후에 보이는 자료는 음라우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j'에 의한 역행동화 현상도 단모음 'e'의 성립 이전과 이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기술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음체계의 변화에 따른 규칙의 변화로 해석되는 것이다.<sup>12)</sup>

- 
- 11) 이승녕(1954년)에서 대상 자료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라우트의 초기 형태가 j 첨가였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 12) 방언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견해가 표명되었다. 최명옥(1980:183)에서 이-역행동화 과정은 'i'가 삽입되는 과정과 두 모음이 축약되는 두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영균(1980:224~230)에서는 완주 지역어의 /pə:m/, /cu:ŋ/의 경우 'i'가 결합할 때 [pəymil], [cuyɪl]로 실현되기도 하는 예와 완관본 '열여춘향수절가'에 보이는 '일의미라(11), 되린듯(123)' 등의 예를 들어, 음라우트 현상이 반드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직접 변한 것이 아니고 ə→ɐ→e를 밟은 것일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전승(1986:165~166)에도 이러한 견해가 보인다. 한편 몽골어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김주원(1998:135)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후행하는 모음 *i* (또는 *j*)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하는 올라우트 현상은 전설모음계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ke*, *pe*, *ke*, *pe*’라는 문헌 표기를 통해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중모음이었던 15세기조차 동일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전설모음계의 존재는 ‘*i*’ 모음에 의한 역행동화 현상 이외의 다른 현상을 통해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곽충구(1980:88), 백두현(1992:90~91)에 의하면 중앙 간행 문헌에서 ‘배프고(兵學 右營 2.6), 삼개횡을(念佛普勸文가50)’처럼 ‘*ke*’와 ‘*pe*’의 혼기가 18세기 후기에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의 음가가 ‘*aj(ke)*’와 ‘*aj(pe)*’였다면 이러한 혼기를 예상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자료가 ‘*ke*’와 ‘*pe*’의 단모음화 시기를 알려 준다고 하겠다. 또한 최윤현(1998:14~25)에서는 18세기 후반의 자료에 보이는 ‘예수(1:8)/예수(1:7), 계자(1:7)/계자(1:70)-십구사략(1772)’나 ‘목메다(3:2)/목메다(1:22)-방언유석(1778)’과 같은 예의 존재 등을 통해 ‘*ke*’, ‘*pe*’의 단모음화 시기를 18세기 말엽으로 추정하였다. ‘*ke*’와 ‘*pe*’가 각각 ‘*je*’, ‘*je*’였다면 이러한 혼기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들이 ‘*je*’와 ‘*e*’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백두현(1992:90~91)에서 지적하듯이 ‘방넨문(方便文)(念佛普勸文가49)’처럼 ‘*ye*’에를 보여주는 예도 ‘*e*’가 이 시기에 단모음임을 알려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 IV. 규칙들의 관련성 파악

1. II장에서 다룬 ‘*ye*’의 순행동화나 III장에서 다룬 역행동화가 하향이 중모음 ‘*e*’ 등이 단모음으로 정착된 이후에 일어났다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규칙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유사한 현상이 존재하였다면, 단순히 규칙 소실과 첨가로만 해석하는 것은 모자람

---

제기하고 있다. 국어 음운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인근의 다른 언어에까지 넓혀야 함을 알 수 있다. 만주어의 역행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성백인(1976:82~86), 김주원(1996:30), 고동호(1999)가 참조된다.

이 있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들을 규칙(*j* 삽입)의 소실과 규칙(음라우트)의 첨가로 나누어서 별개의 것으로 기술할 경우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은 만족스럽지만, 국어 음운사를 통합적으로 엮는 관점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인데, 이 둘의 사이에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전설모음계의 생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각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여기서는 후행하는 전설 고모음에 의해 선행하는 모음 뒤에 *j*가 삽입되는 현상을 규칙1, 축약에 의한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규칙2, 음라우트를 규칙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규칙2의 성격이다. 이는 축약에 의한 무조건 변화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규칙2가 축약에 의해 일어났다고 할 때, 규칙1에서 규칙3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12)

어휘류 (15세기)	규칙1	규칙2	규칙3	현대
1(əCi)	əCi → jəCi	jəCi → eCi	eCi	eCi
2(əCi)			əCi → eCi	eCi
				əCi

규칙1에 의해 변한 어휘류1에 규칙2가 적용된 결과는 규칙3의 적용 결과와 동일하므로 새로이 규칙3이 만들어지는 근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규칙2를 축약에 의한 과정으로 볼 경우, '여)예)에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여)...)에의 변화를 직접 축약으로 보는 관점이다. 'jə → jə j'의 'j' 삽입을 규칙4, 'jə → e'의 축약을 규칙5, 자음 뒤의 상향성이중모음의 'j' 탈락을 규칙6, 그리고 'e → ə'의 고모음화를 규칙7이라고 하고, 규칙6이 적용된 단계를 살펴보면, 기원적인 'jə'가 'e'로 변한 것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하나는 규칙4와 규칙2의 적용을 받지 않은 어휘류2에 축약인 규칙5가 직접 적용된 것이지만, 다른 한 종류는 규칙4와 규칙2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규칙5는 적용되지 않은 어휘류1의 일부에 규칙6이 적용된 것들이다.

(13)

어휘류 (15세기)	규칙4	규칙2	규칙5	규칙6	규칙7	현대
1(jə)	jə→jej	jej→je		je→e	e→i	i
						e
						je
2(jə)			jə→e		e→i	i
					e	
					jə	

이 경우는 현대국어에서 'je'로 실현되는 것들은 모두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인 규칙2의 적용 이전에 'j' 삽입인 규칙4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진 어형들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sup>13)</sup> 기원적으로 'j'인데 현대국어에서 'je'로 실현되는 어형들은 모두 'j' 삽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설명에 이의를 달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다룬 (9)의 예들이나 19세기의 전라방언에서 규칙4가 사라진 이후에도 '예' 형이 새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설명에 무리가 따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4)에서 보듯이 규칙5의 상향이중모음의 축약 대신 'jə→je'와 같이 상향이중모음의 핵모음이 전설화된 규칙8을 제안하게 된다.

13) 규칙5와 규칙6의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는 동일하게 남는다.

(14)

어휘류 (15세기)	규칙4	규칙2	규칙8	규칙6	규칙7	현대
1(jə)	jə → jəi	jəi → je		je → e	e → i	i
						e
						je
2(jə)			jə → je	je → e	e → i	i
						e
						je
						jə

(14)는 현대 국어의 'je'형들의 일부는 규칙4와 규칙2를 겪은 것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규칙8을 겪은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는 II장에서 '여>...'에가 'je>je>e'의 세 단계 변화를 겪었다고 보는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하향이중모음의 경우 규칙2에서 보듯이 'əj>e'와 같이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겪는 데 반해, 상향이중모음의 경우는 규칙8에서 보듯이 'jə>je'라는 핵모음의 전설모음화를 겪는다는 점이다. 이 두 이중모음류의 변화 과정의 차이가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활음 'j'가 음절 핵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향이중모음에서는 음절이 축약되면서 단모음화가 일어나고, 상향이중모음에서는 핵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하향이중모음의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인 규칙2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영균(1991)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한영균(1991:138)에서는 '드뵤->...'되'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16세기의 '드와-, 도와-, 도와-, 도인-, 되-, 도아-, 되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이중모음으로 [aj, əj, oj, uj] 이외에 [ej, ej, öj, œj, üj]의 변이음을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하향이중모음의 경우도 후행하는 활음 'j'에 의해 선행하는 음절핵 모음의 음성적 전설모음화가 있었으리라는 주장이다. 이렇

게 보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설명하는 틀인 ‘축약’이라는 과정에서 상정되는 불연속적인 음운변화가 어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sup>14)</sup> 이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축약에 의한 무조건적 변화로 보던 관점이 후행하는 ‘j’에 의해 선행하는 핵모음이 음성적으로 전설모음계로 변한다는 조건적 변화(규칙9)로 보는 관점으로 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에, 애, 외, 위’ 등이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변하기 전에 음절 핵 모음이 음성적 차원의 전설모음화를 겪었다고 가정하면, 이-모음역행동화와 음라우트의 사적 변천 과정인 (12)는 다음의 (15)와 같이 수정된다. 여기서는 후행하는 ‘j’에 의해 선행하는 핵모음이 음성적으로 전설모음계로 변하는 규칙을 규칙9로, 그에 따라 하향이중모음의 활음 ‘j’가 탈락하는 규칙을 규칙10으로 표기한다. 이 규칙10은 전설모음계가 음운론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향성 ‘j’의 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15)

어휘류 (15세기)	규칙1	규칙9	규칙10	규칙3	현대
1(əCi)	əCi→əjCi	əjCi→ejCi	ejCi→eCi		eCi
2(əCi)				əCi→eCi	eCi
					əCi

14)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해 김진우(Kim 1968)에서는 전설모음화와 활음 탈락의 계기적 적용 결과로 보았으며, 최전승(1978)에서는 이중모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 일종의 동화 작용으로 해석하였다. 최유현(1998:8-9)에서는 방언 등에 보이는 전설모음화의 예 등을 토대로 ‘əj/ej’e’처럼 활음 j의 약화 탈락 과정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고동호(1999:32-33)에 의하면 만주어의 경우 문어형의 ‘juwari(夏)’가 ‘dzuæile’로 실현된 예가 있다. ‘a’가 i 역행동화에 의해 ‘æi’로 변한 예인데, ‘a’는 이 환경에서 ‘ai~æ, i, ia, ia~ia, yæ~y; ai, æi, e, æ, ai~æi, æ~æi’의 11개 유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행동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여기서 보는 관점과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신승용(2000:69)에서는 인구어에서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하향이중모음의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로 불리던 규칙2는 음성적 차원의 규칙9와 그에 따른 규칙10의 적용을 통합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9의 설정은 '여>...'에의 변화 과정에도 적용되므로, (14)는 (16)처럼 수정된다.

(16)

어휘류 (15세기)	규칙4	규칙9	규칙10	규칙8	규칙6	규칙7	현대
1(jə)	jə → jɛ	jɛj → jɛj	jɛj → jɛ		je → ɛ	e → i	i
							e
							je
2(jə)				jə → jɛ	je → ɛ	e → i	i
							e
						je	je
							jə

이렇게 보면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과 상향이중모음의 변화 과정에 모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설모음계가 성립되기 전에 이중모음의 활음 'j'가 음절 핵모음에 영향을 미쳐 음성적 차원의 전설모음화가 일어났고, 전설모음계가 음운론적 차원에서 정립된 후에도 이중모음의 활음이 음절 핵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남아 있어서 규칙8의 'jə → jɛ'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규칙4, 규칙9, 규칙10을 계기적으로 적용받은 어휘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성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다음으로는 전설모음계가 성립되기 전과 후의 규칙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변화 과정 중 필자가 추정하는 과정은 (15)와 (16)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논의에 필요한 현상들만 간추려서 표로 보이기로 한다. 또한 규칙9와 규칙10은 결국 규칙2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둘을 합쳐 규칙2로 표기한다.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성격이 지금 논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7)

어휘류	규칙1	규칙2	규칙3
1(əCi)	əCi → əjCi	əjCi → eCi	eCi
2(əCi)			əCi → eCi

(18)

어휘류	규칙4	규칙2	규칙8
1(jə)	jə → jəj	jəj → je	je
2(jə)			jə → je

여기서 규칙1과 규칙4의 j 삽입은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동화라는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규칙1은 후행하는 모음 'i'에 의한 역행적인 원격 동화 현상이고, 규칙4는 선행하는 'j'에 의한 순행적인 인접 동화 현상이라는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설모음계가 형성되는 규칙2의 단계에서 이 규칙들은 소멸하고 새로운 모음체계에 맞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성된다. (17)에서는 음라우트라 규칙인 규칙3이 생성되었으며, (18)에서는 전설모음화 규칙인 규칙8이 생성되었다.

규칙3과 규칙8은 그 각각이 선행 규칙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 규칙들이 적용되는 환경이 선행 규칙들과 동일하고, 적용 결과도 동일하므로 연속선상에 있는 규칙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규칙의 소멸과 생성이라는 관점으로 사적인 변화를 기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규칙1과 규칙2의 통시적 적용이 규칙3이라는 공시적 규칙의 생성을 이끌어내었고, 규칙4와 규칙2의 통시적 적용이 규칙8이라는 공시적 규칙의 생성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9) 규칙1+규칙2)규칙3

(20) 규칙4+규칙2)규칙8

여기서 규칙1과 규칙3은 그 규칙 적용의 환경이 동일하다. 그리고 규칙이 적용된 결과는 다르지만, 그 원인과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규칙4와 규칙8 역시 동일하게 해석된다. 규칙1과 규칙4가 전설모음계의 생성으로 인해 규칙3과 규칙8로 변한 것이다.

이는 음운 도출에서 중간 단계가 소실된 것으로(telescoping),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존재하던 두 규칙이 겹쳐진 규칙의 중첩이 일어난 것이다.<sup>16)</sup> 이러한 규칙 중첩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규칙3은 여전히 음성적 동기를 갖는 음라우트라는 규칙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단, 규칙8의 경우는 ‘여→예’ 자체가 음성적 동기를 갖는 것인지 그 자체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데, 이 문제는 ‘위>오’의 변화 과정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될 때 그 변화 동인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sup>17)</sup>

## V. 결론

1. ‘여, 야, 요, 유’등 상향이중모음은 현대국어의 많은 방언에 ‘예, 애, 외(에, 애), 위’로 반영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여(…)예’의 변화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sup>18)</sup>

15) 김주원(1998:136)에서는 (17)에 대해 “이것을 과연 동일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 Hyman(1975:173-175) 참조. 백두현(1992:222)에서도 위의 (19)에 대해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필자는 ‘위>오’의 변화 과정도 동일 음절 내에서 활음에 의해 핵모음이 동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성규(2004) 참조.

18) ‘야>애, 요>외, 유>위’의 변화는 19세기 이후에 주로 발견된다. 최임식(1984)에서

이 변화에 대해 축약으로 보려는 관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두 가지임을 밝혔다. 그 하나는 활음 [j]의 삽입과(jo→jej), 후행하는 [j]에 의한 핵모음의 전설모음화 과정(je→jej) 및 음절말 활음 탈락(jej→je)을 겪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설모음계의 생성 이후에 선행하는 활음에 의해 음절 핵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동화되는 과정(je→je)을 겪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어형으로 실현된다.

논의 과정에서 상향이중모음의 변화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밀접한 관련 하에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에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직접적인 축약이 아니라 후행하는 활음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음절 핵모음이 음성적으로 전설화된 후, 활음이 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음라우트와 상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전에 산발적이지만 [j] 삽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현상과 관련을 맺으며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칙의 변화를 단순히 규칙의 소멸과 생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전설모음계의 생성이 원인이 되어 규칙의 중첩이 일어난 것이지, 음라우트나 '여→예(je)'가 갑작스럽게 문법 체계에 첨가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2. 본 논의는 어떻게 보면 증명되지 않은 가설 수준의 것이다. 그 이유는

보고한 19세기 서북방언 자료의 '썸(누 6:29)과 오종갑(1983:290)에서 이 시기의 전라방언으로 보고한 '형화(<향화 이675), 경형(<경향 춘 59), 고흥(<고향 이668)' 등은 '야'에를 보여주며, '향지너(香材料 목18:13)와 '주회(<酒肴 춘83), 신피(神妙 이674)는 각각 이 시기의 서북방언과 전라방언에 '요'외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북방언의 '지쉴(피전2:7)(<주쉴(역상:17))과 전라 방언의 '횡노(匈奴 이682), 심귀(深閨이 675)를 통해서 '유'위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오작괴(烏鵲橋 춘45), 회자(孝子 춘43)는 오종갑(1983:291)에서 지적하듯이 '요'가 '외'로 직접 변한 것이 아니라 '요)외)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였는데, 자료들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필자의 관점에서는 이들도 활음에 의한 전설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정착된 이후에 생겨난 '여(je)예(je)'와 동일한 변화로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명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 1)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정한 음성적 전설모음화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 2)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서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후 발생한 것으로 설정한 음절말 ʃ 탈락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3) 음절 안에서 활음에 의한 전설성 동화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인가?
- 4) 후행하는 모음 ʃ에 이끌려 선행하는 음절말에 ʃ를 삽입하는 현상과 움라우트는 동일한 효과를 지향하는가?
- 5) 상향이중모음에서 선행하는 활음 ʃ의 영향으로 음절말에 ʃ를 삽입하는 현상과 후행하는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은 동일한 효과를 지향하는가?
- 6) 활음에 의한 상향이중모음의 동화가 가능하다면 '위)오'도 동화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들 가운데 1)은 현재로서는 증명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16세기의 자료에 대한 논의였지만 한영균(1980)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었으며, 고동호(1999)에서 제시된 만주어의 예가 방증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2)는 후행하는 활음이 선행하는 음절 핵모음에 영향을 주고 탈락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3)은 전설모음계가 생성된 이후에 생겨난 '여)예(je)'의 변화가 살아있다는 점을 통해 그러한 동화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4)와 5)의 경우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의 경우는 지면 분량 상 본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 필자의 별도의 논문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sup>19)</sup>

---

19)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문제점을 지적해 준 김현 선생과 이진호 선생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참고문헌

- 고동호(1999), 「三家子 만주어의 i 예기 동화」, 『알타이학보』9, 한국알타이학회, pp.11~38.
- 곽충구(1980),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43,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곽충구(1982-), 「'왕겨'의 방언형들의 지리적 분포와 그 비교 연구」, 『개신어문연구』2, 충북대학교, pp.1~14.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2004), 「'위'오'의 통시적 고찰」, 『국제어문』30, 국제어문학회, pp.5~26.
- 김영송(1974), 「경남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 김완진(1963),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24(『국어음운체계의 연구』, 1971, 일조각, 2~44에 재수록).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인문연구』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1~56.
- 김주원(1996), 「만주통구스제어의 전설모음의 발달에 대하여」, 『알타이학보』6, 한국알타이학회, pp25~35.
- 김주원(1998), 「몽골어와 한국어의 움라우트 연구」, 『알타이학보』8, 한국알타이학회, pp. 121~142.
- 김충희(1981), 「충북 단양 북부방언 연구 서설」, 『개신어문연구』1, 충북대학교, pp.77~94.
- 김충희(1982) 「충북 단양 방언 연구(I)-음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2, 충북대학교, pp.31~67.
- 김현(2003), 「활용상에 보이는 평태음운론적 변화의 요인과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숙희(1998), 「영일 지역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총서19, 국어학회, 태학사.
- 성백인(1976), 「만주어 음운사연구를 위하여(其一)」, 『언어학』1, 한국어언어학회, pp.73~98.
- 신승용(2000),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중진(2001), 「국어 움라우트 연구사」, 『울산어문논집』15,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59~183.
- 안병희(1985), 「'별행록절요언해'에 대하여」, 『김일근박사회갑기념 어문학논총』.
- 오종갑(1983), 「'야, 여, 요, 유'의 변천」, 『한국학논총집』10, 계명대학교
- 오종갑(1994),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모음 음운현상과 제약」, 『인문연구』2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48.
- 오종갑(1999), 「y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인문연구』3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45.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 이광호(1977), 「i모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어문학』36.
- 이병근(1973), 「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pp.133~147.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72·73, 국어국문학회.
- 이상규(1984), 「울주지역어의 음운」, 『어문논총』 19, 경북대학교.
- 이승녕(1948), 「'애, 예, 외'의 음가변이론」, 『한글』106, 한글학회, pp.25~35.
- 이승녕(1954),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1,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 이승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음고(보수편)』 을유문화사.
-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45,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최명옥(1980), 『경북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명옥(1987), 「평북 의주지역어의 통시음운론」, 『어학연구』 23-1, 서울대학교

- 어학연구소, pp65~90.
- 최명옥(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 최명옥(1995), 「X | Vst 어Y의 음운론」, 『진단학보』79, 167~190면, 진단학회, 1995.
- 최윤현(1998), 「[əy]의 단모음화[e]에 관한 통시적 연구」, 『강원인문논총』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26.
- 최임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전승(1978), 「국어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19, 전북대학교.
- 최전승(1987),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어학』 14, 전북대학교, pp.19~48.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90), 「움라우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전주지역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 하신영(2003), 「어간+아/어X'의 음운론적 연구」, 『제30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pp 3~10.
- 한영균(1980), 「완주지역어의 움라우트현상」,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11~232.
- 한영균(1991ㄱ), 「움라우트의 음운사적 해석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
- 한영균(1991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한 삼의」,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Hyman, L.M.(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m, Chin-W.(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 Kiparsky, P.(1972), Explanations in phonology, in S. Peters(ed.), *Goals of linguistic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p. 189-227.